

18세기 승장 覺敏의 활동지역과 建築技法 연구*

오세덕**

- I. 머리말
- II. 각민의 활동지역과 시기
- III. 각민 불전에 사용된 건축기법
- IV. 신흥사 극락보전과 내소사 대웅보전을 통해본 각민과의 연관성
- V. 맺음말

I. 머리말

한반도에 남아 있는 오래된 건물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것이다. 이러한 건물은 평민이 살았던 살림집을 비롯하여 각종 官廳, 교육기관인 鄕校와 書院, 佛殿, 宮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각 건물은 그 용도와 기능에 맞게 지어졌으며 필요에 의한 증·개축 과정이 반복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 고건물의 조영에는 다양한 분야별로 많은 장인이 투입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장인이 나무를 다루는 목수이다. 목수 중에서도 건물을 종합적으로 계획, 설계, 시공 등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인물을 大木手라 부른다.¹ 한반도에 남아 있는 오

* 본 논문은 오세덕, 「朝鮮後期 僧侶匠人의 系譜와 建築技法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4.) pp. 125-146에 수록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주대학교

¹ 현재 전통건축을 조영하고 있는 대목수의 건축기법 분석을 통해 각 장인마다 독자적인 건축기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래된 건물에서도 이 대목의 역할은 지대하였을 것이다.

고건물 조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대목 즉, 장인에 대한 연구는 한국건축사에서 그동안 활발한 논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² 특히 조선후기에 활약했던 사찰의 승려장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17세기 팔공산 일원의 覺元, 戒衍, 性坦과 전라도 송광사 일원의 勝元이 있다.³ 18세기에는 지리산 일원의 月圓, 전라도와 경상도 일원에서 활약했던 快衍, 부산 범어사와 통도사 일원의 祖軒, 대구와 논산 일원에서 활약한 覺敏 등이 있다. 19세기는 앞선 시기에 비해 승려장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기도와 경상북도 일원에서 활약한 敏悅이 두각을 나타낸다.

조선후기 활동했던 많은 승려장인 중에서도 18세기 가장 뚜렷한 建蹟을 남긴 인물이 각민이다. 승장 각민은 평안도 지역의 장인으로 추정되며, 18세기 초반 이루어진 대구 동화사 대웅전 중건에 초빙되어 도대목으로 공사를 이끈다. 이후 논산 쌍계사로 이동하여 대웅전을 중건한다. 각민이 중건한 대구 동화사 대웅전과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18세기 일반 불전과 다른 특징적인 건축기법을 공유하고 있어, 승장의 독자적인 건축기법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과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역시 각민이 조영한 불전과 동일한 건축기법이 적용되고 있어, 각민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8세기 일반 불전과 각민이 조영한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의 비교를 통해 승장의 독자적인 건축기법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재건된 내소사 대웅보전과 신흥사 극락보전의 조영자와 재건시기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다.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날 전통 한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건축기법이 건물 조영 당시 장인의 건축술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김종훈, 「전통 한옥 계획에 나타난 장인 건축기법 연구」, (明知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1).

2 장인에 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技文堂, 1993).

서치상,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來地域 造營活動」, 『건축역사연구』 제12권 3호(2003).

손신영, 「興天寺와 華溪寺의 건축장인과 후원자」, 『강좌미술사』 26 (2006).

김동욱, 「정조·순조연간 관영공사에서 別看役 丁遇泰의 조영활동」, 『건축역사연구』 제16권 3호 (2007).

장경희, 「조선후기 魂殿 造成 木手 연구」, 『한국학연구』 29 (2008).

도윤수·한동수, 「17-19세기 김룡사의 佛事 관련 기록물 현황과 營建활동」, 『건축역사연구』 제22권 5호 (2013).

오세덕, 「17世紀 僧匠의 建築術 研究-覺元을 中心으로-」, 『東岳美術史學會』 第12號 (2011).

오세덕,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건립시기 재검토-월원의 건축술 분석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43집 (2014).

오세덕, 「울진 佛影寺 大雄寶殿과 僧匠의 建築術」, 『문화재』 제47권 (2014).

오세덕, 「18世紀 僧匠 快衍의 建築術과 佛殿」, 『고문화』 83 (2014).

오세덕, 「朝鮮後期 僧侶匠人의 系譜와 建築技法 研究」(東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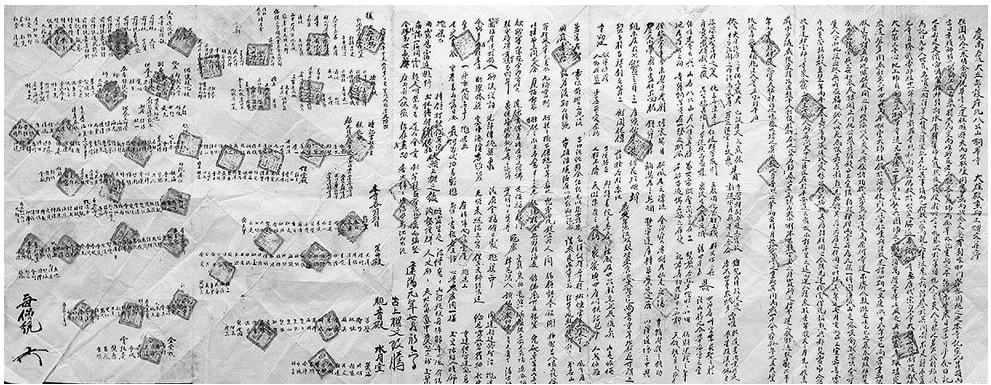
3 17세기 승장 性坦은 1643년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종도리 목서명과 1655년 운문사 대웅보전 법당 기문에 등장하고 있다.

II. 각민의 활동지역과 시기

승장 覺敏(覺珉)은 18세기 초반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을 건립한 장인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생몰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⁴ 다만 그의 출신 지역이 2002-2005년까지 해체 수리된 동화사 대웅전 종도리에서 출현한 상량문을 통해서 짐작 가능할 뿐이다(도 1).

동화사 대웅전 해체과정에서 출현한 상량문의 내용은 크게 사찰과 대웅전의 중창 연혁에 관한 서문과 공사에 참여했던 사찰의 소임자 및 시주자, 장인 등을 기록한 연화질로 구분된다.

서문에는 사찰의 창건이 신라 普照和尚때이고 772년에 한 차례 중창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3중창은 1298년 弘眞國師가 하였고, 4중창은 萬曆20년(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가람이 전소되어 1606년 병오년 松雲大師가 이룩한 사실을 담고 있다. 이후 1677년에 尙唄스님이 5중창을 하였으나 1725년 화재로 법당과 함께 삼세여래 및 누각, 정문, 佛公藏, 향로전, 서상실, 미륵전, 그리고 선당과 승당 등 아홉 채의 건물이 전소되는 참화를 기록하고 있다.⁵ 1725년 화재 이후 7월부터 가람의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僧堂과 禪堂을 먼저 중건하고, 이어서 10여명의 대중이 합심하여 법당(대웅전) 중건을 위해 평안도에 뛰어난 장인을 초청해 畫藏子戶⁶와 같이 중창한다.⁷



도 1 <동화사 대웅전 상량문>, 1732년

4 僧匠 覺敏에 관한 기록은 동화사 대웅전 상량문, 쌍계사 대웅전 상량문 이외에 추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각민의 계보 및 사승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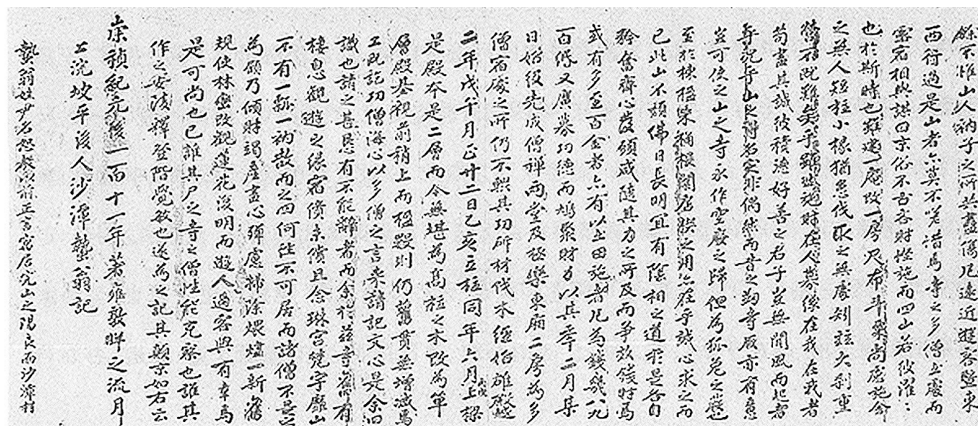
5 『팔공산 동화사』(동화사·국립대구박물관, 2009), pp. 268-276.

6 畫藏子戶는 꽃살창문의 조선시대 명칭이다(任聖玉, 『朝鮮後期 꽃살 窓戶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2010, p. 9).

상량문 서문에 등장하는 초대된 평안도의 뛰어난 장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어서 쓰인 연화질에 ‘都大木 登階 覺玟 平安道安州五道山 金洞寺居’⁸⁾를 기록하고 있어 서문에 등장하는 평안도 뛰어난 장인이 각민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⁹⁾ 동화사 대웅전 중건에 도대목으로 참여한 각민의 출신지에 대한 기록은 1738년 재건된 논산 쌍계사 대웅전 상량문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1972-1973년 사이에 해체 수리되어 종도리에서 상량문이 출현 하였다(도 2). 쌍계사 대웅전 상량문은 동화사 대웅전 상량문과 같이 서문과 연화질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문 말미에 공사를 담당한 주관자와 건물을 지은 장인에 대한 간략한 기록만 남기고 있다.

쌍계사 대웅전 상량문을 살펴보면 사찰의 창건은 정확하지 않고 대웅전은 1716년 自英의 발원으로 중창된다. 그러나 1736년 11월 화재가 일어 大雄殿을 포함한 大樓, 향로·종각 및 승·선당, 동·서상실 그리고 명월, 백운, 관음, 미타, 극락, 海會, 三寶 등 전각 5-6 백간이 전소된다. 이



도 2 <쌍계사 대웅전 상량문>, 1738년 (『上樑文集』,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1980, p. 71.)

7 “「慶尙左道 大邱都護府北 八空山 桐華寺 大雄殿 重剎上梁文并序」(중략) 卽以寺中合議 立化主十餘人 而尋問天下之良匠 在於平安道云爾 故不計天里之遠 而選人請來於去年授衣之月 先以作畫藏子戶 過歲後 更請次匠數十人 始役於仲春也(후략)”, 동화사·국립대구박물관, 앞의 책, p. 268.

8 「慶尙左道 大邱都護府北 八空山 桐華寺 大雄殿 重剎上梁文并序」, 연화질 도대목 등계 각민이 평안도 안주 오도산 금동사에 거주한 것을 알 수 있다(동화사·국립대구박물관, 앞의 책, p. 269).

9 金洞寺는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 寶藏奉老 普德移庵 조에 “(전략) 普德 師有高第十一人 無上和尙與弟子金趣等 創金洞寺(후략)” 라는 창건주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 『梵宇攷』, 『伽藍攷』, 『韓國寺刹全書』 등에는 在平安道安州郡悟道山에 위치가 확인된다.

후 1738년 사역을 정비하고 1월 22일 대웅전의 기둥을 세우고 같은 해 6월 5일 상량하였다.¹⁰ 이때 공사를 주관한 인물은 性能과 克察이고 지었던 장인은 “평안도 안릉 승 각민”으로 기록하고 있어 대웅전을 건립한 승장이 북한의 평안도 출신 장인임을 명시하고 있다.¹¹ 이는 동화사 대웅전 상량 문 서문과 연화지에 등장하는 각민이 평안도 장인이라는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 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장인이 평안도에 거주하다 남하한 각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편 북쪽의 평안도 묘향산 동쪽 연변에 위치하고 있는 天柱寺의 보광전이 1722년 중수되어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¹² 보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포계 팔작집으로 자연석 기단위에 있다. 공포는 외 3출목 7포작, 내 5출목 11포작이고, 제공의 세부형태는 외단은 3제공까지 연화쇠서형 양서이고, 4제공은 수서 상부로 봉황두를 올려 마감하고 있다. 내부 제공은 초각한 줄기에 연꽃을 달고 있으며 5제공부터는 연봉을 가미하여 마감하고 빗천장 살대 받침까지 잇고 있다. 내외 출목수가 2단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높은 내·외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빗천장을 설치하고 있다. 창호 전면으로 모두 국화문과 기하학문이 장식된 꽃살창을 설치하고 있다.¹³ 이러한 천추사 보광전의 공포 형식, 외부 장식법, 천장 구성 요소 등이 쌍계사 대웅전 및 동화사 대웅전과 동일한 장엄 요소를 보이고 있어 각민의 건축 기법이 묘향산 일원의 건축기법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승장 각민의 추가적인 행적은 1738년 쌍계사 대웅전 중창 이후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745년 중건된 내소사 대웅보전과 1750년 중건된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의 건립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은 IV장을 통해 더욱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승장 각민의 활동지역과 시기를 정리해보면 1722년을 전후한 시점에 평안도에 기거하였고, 1732년 대구 동화사 대웅전 재건공사에 초빙되어 도대목을 맡아 공사를 주도적으로 이끈다. 이후 5년 뒤인 1738년 논산 쌍계사 대웅전 중수 공사에 도대목으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1745년 재건된 내소사 대웅보전과 1750년 신흥사 극락보전 중건 공사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약 20년 정도의 행적이 추적된다(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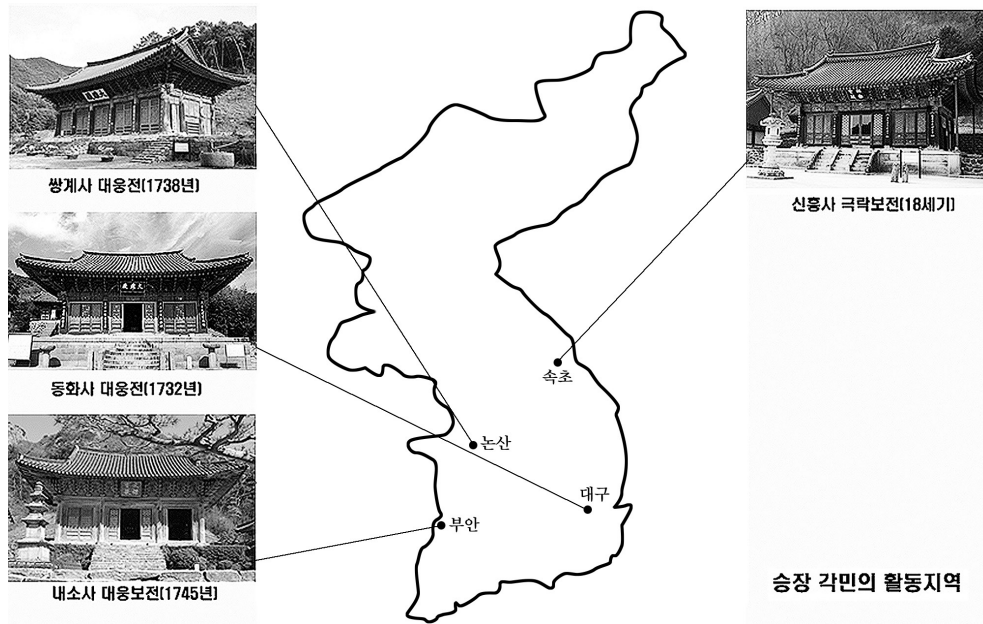
승장 각민의 활동지역과 참여 불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¹⁰ 『上梁文集(補修時發見된 上梁文)』(文化部 文化財管理局, 1980), pp. 71-78.

¹¹ 『恩津雙溪寺重創記』, “(중략) 作之安陵釋登階覺敏也 (후략)”,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1980), p. 73.

¹² 天柱寺는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읍 약산동대의 동쪽 기슭에 있는 사찰로 북한의 국보유적 제 46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한의 전통사찰 ④ 평안북도(下)』(양사재, 2011), pp. 182-213.

¹³ 『북한의 건축문화재 사찰건축편·일반건축편』(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6), pp. 160-164; 『북한의 사찰』(대한불교진흥원, 2009), pp. 94-95.



도 3 <각민의 활동 지역>

<표 1> 각민의 조영활동

순번	건립 건축물 및 시기	지역	내용
1	동화사 대웅전(1732년)	대구	都大目 登階 覺玓
2	쌍계사 대웅전(1738년)	논산	作之安凌釋 登階 覺敏
3	내소사 대웅보전(1745년)	부안	각민 추정
4	신흥사 극락보전(1750년)	속초	각민 추정

Ⅲ. 각민 불전에 사용된 건축기법

앞장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본 승장 각민은 북한 평안도에서 경상도를 거쳐 전라도 일원까지 이동하며 공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18세기는 승장의 활동 범위가 17세기보다 넓어지고 있지만 각민처럼 광범위한 활동 반경을 보이는 장인은 찾기 힘들다.¹⁴

¹⁴ 17세기 대표적인 승려장인인 각원은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복지장사 대웅전, 팔공산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승원은 화엄사 대웅전, 송광사 약사전·영산전, 월원은 지리산 화엄사, 쌍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8세기 승장들보다 활동범위가 좁은 편이다(오세덕, 「朝鮮後期 僧侶匠人의 系譜와 建築技法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4, pp. 51-92).

각민의 행적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건물이 1732년 중건된 동화사 대웅전이고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1750년 신흥사 극락보전으로 약 20년 남짓한 활동 기간을 보이고 있어 18세기 다른 승장의 활동 시기와 비슷하다. 각민이 남긴 동화사 대웅전(도 4), 논산 쌍계사 대웅전(도 5) 등은 18세기의 대표적인 화려한 장엄조식을 보이는 가장 선구적인 건물로써 한국건축사에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⁵



도 4 <동화사 대웅전>



도 5 <쌍계사 대웅전>

18세기를 대표하는 불전으로써 손색이 없는 각민 불전을 본장에서는 평면, 공포, 가구, 세부기법과 의장관계 등을 검토한 후, 18세기 일반 불전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적인 건축기법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 번째, 각민 불전의 평면은 동화사 대웅전이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조선후기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다.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면 12척-16척-12척 간격이고, 측면은 8척-12척-8척 간격이다. 일반적인 조선후기 불전 중 동화사 대웅전처럼 불단을 이주위치에 놓고, 정면 3칸×측면 3칸 형식을 보이는 건물로는 관룡사 대웅전, 백흥암 극락전, 흥국사 대웅전, 불영사 대웅보전, 미황사 대웅전, 용주사 대웅전, 불회사 대웅전, 선암사 대웅전, 개암사 대웅보전, 내소사 대웅보전 등이 있고, 조선전기 건립된 봉정사 대웅전 등이 있다.¹⁶ 이러한 불전의 평면 형식을 정면 주칸 간격 설정에 따라 정칸을 가장 넓은 간격으로 설정하는 정칸강조형인 B-A-B

¹⁵ 각민 불전에서 보이는 이러한 화려한 장엄조식이 일반적으로 전라도 일원에서 경상도 일원으로 전파되었다는 견해로 설명되고 있으나, 각민을 통해 평안도 일원에서 유행했던 건축기법이 남쪽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¹⁶ 『영조규범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6), p. 133 표 3-1 분석대상 목조건축(불전)의 평면유형 참조. 3×3칸 이주 위치에 불단을 배치한 불전이다.

형식과 세 칸을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설정한 A-A-A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동화사 대웅전과 조선후기 다수의 불전은 정칸강조형을 사용하고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측면 역시 정면의 정칸강조형의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중앙칸강조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동화사 대웅전과 조선후기 불전의 평면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각 건물마다 전체적인 평면의 주칸 간격과 정면과 측면의 비율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칸구성은 각 건물의 조영 당시 복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상정해 볼 수 있으나, 공교롭게도 각만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정면 3칸×측면 3칸 불전인 동화사 대웅전과 내소사 대웅보전, 신흥사 극락보전 등은 모두 불단을 이주 위치에 놓고 동일한 주칸 간격의 설정과 정면과 측면의 비율이 1:1.4의 황금 비율에 가까운 장단비율을 보이는 등의 공통된 요소가 확인되고 있어 일정부분 장인의 건축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⁷ 정면 3칸×측면 3칸에 이주 위치에 불단을 배치한 불전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정면 3칸×측면 3칸 이주 위치에 불단을 배치 한 불전¹⁸

연번	불전명	주칸간격(단위) (정면)	주칸간격(단위) (측면)	정면대 측면평면비 ¹⁹
1	봉정사 대웅전	4390-4600-4390 14-15-14(B-A-B)	2942-2942-2942 9-9-9(A-A-A)	1:1.516
2	관룡사 대웅전	2694-3794-2694 8-12-8(B-A-B)	2509-2509-2509 8-8-8(A-A-A)	1:1.220
3	흥국사 대웅전	4930-4930-4930 16-16-16(A-A-A)	3702-3702-3702 12-12-12(A-A-A)	1:1.334
4	불영사 대웅보전	2999-4575-2999 11-15-11(B-A-B)	2998-2820-2998 11-10.5-11(A-B-A)	1:1.199
5	미황사 대웅전	3779-3754-3745 12-12-12(A-A-A)	2457-3097-2465 8-10-8(B-A-B)	1:1.404

¹⁷ 17세기 승장 각원파가 만든 운문사 대웅보전과 울곡사 대웅보전에서 동일한 주칸 간격설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승려장인의 독자적인 건축스타일로 분석된다(오세덕, 「17世紀 僧匠의 建築術 研究-覺元을 中心으로-, 『東岳美術史學』 第12號, 2011, p. 156).

¹⁸ 문화재청, 앞의 보고서 (2006), pp. 165-168, 표 3-23 조선시대 건축의 평면 장단비 및 표3-25 도리통 3칸 건물의 주칸 구성; 『동화사 대웅전(2002년-2005년) 文化財 修理報告書』(大邱廣域市, 2007); 문화재청, 앞의 보고서 (2012) 참조.

¹⁹ 건물의 정면대 측면 비율은 사용 용척 비율이 아닌, 주칸 간격의 실측값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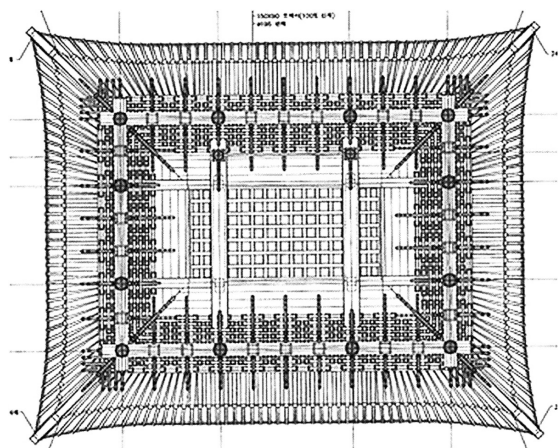
6	용주사 대웅전	3673-4164-3673 12-13.5-12(B-A-B)	2466-3673-2466 8-12-8(B-A-B)	1:1.338
7	불회사 대웅전	3683-3683-3683 12-12-12(A-A-A)	2459-2459-2459 8-12-8(B-A-B)	1:1.495
8	선암사 대웅전	4472-4472-4472 14-14-14(A-A-A)	3387-3290-3397 8-12-8(B-A-B)	1:1.332
9	개암사 대웅보전	3750-4350-3750 12-13.5-12(B-A-B)	2505-2790-2505 8-12-8(B-A-B)	1:1.519
10	내소사 대웅보전	3690-4920-3690 12-16-12(B-A-B)	2455-3660-2474 8-12-8(B-A-B)	1:1.434
11	동화사 대웅전	3650-4900-3650 12-16-12(B-A-B)	2490-3650-2490 8-12-8(B-A-B)	1:1.413
12	신흥사 극락보전	3696-4928-3695 12-16-12(B-A-B)	2464-3696-2464 8-12-8(B-A-B)	1:1.423

각민이 건립한 불전 중 동화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형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장단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쌍계사 대웅전은 정면 5칸(12척-12척-12척-12척-12척), 측면 3칸(8척-12척-8척) 구성으로 18세기 초반에 건립된 일반 불전에 비해 그 규모가 다소 큰 편이다. 그러나 쌍계사 대웅전의 불전 평면에 관해서는 상량문에 이미 “이 대웅전은 본시 2층이었으나 지금은 높은 기둥이 될 만한 재목이 없어서 단층으로 고쳐 만들었고, 殿의 터는 전보다 조금 높이었으나 간수는 예전 규모대로 따르고 더 증감함이 없었다.”²⁰ 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각민 중수 당시 사찰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평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각민 불전의 공포배치 및 세부형태는 동화사 대웅전은 정면과 후면의 정칸은 3조씩 주간포를 놓고, 협칸과 측면의 중앙 칸은 2조씩 놓았다. 측면의 전·후칸은 주간포를 1조씩 놓아 건물 전체적으로 주간포 22조, 주심포 8조, 귀포 4조를 포함해서 총 34조로 배치하고 있다(도 6). 또한 건물의 사방 모두 공포 세부형식 및 주칸 간격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정하게 배열하고 있어 사면동일형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쌍계사 대웅전의 경우 하부의 평면 형태가 3칸 불전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공포의 배열에도 차이가 있다. 정면 5칸과 측면 중앙 칸, 배면 퇴칸은 주간포를 2조씩 놓고, 측면의 전·

²⁰ 『恩津雙溪寺重創記』, “(중략)本是二層 而今無堪爲高柱之木 改爲單層 殿基視前稍上 而楹數則仍舊貫 無增減焉 (후략)”(『上梁文集(補修時 發見된 上梁文)』,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1980, p. 73).



도 6 <동화사 대웅전 공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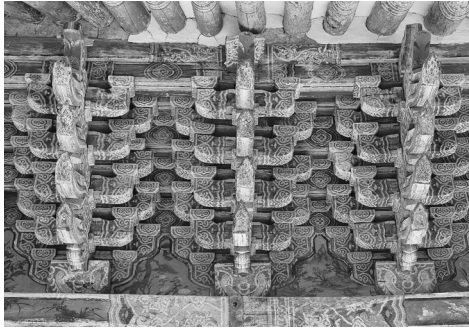
후칸과 배면 중앙 3칸은 주간포를 1조씩 놓아 전체적으로 주간포 21조, 중심포 14조, 귀포 4조를 포함한 총 39조를 배열하는 정면강조형이다. 이러한 쌍계사 대웅전의 주간포 생략은 당시의 경제적인 여력이 여의치 않아 중층 불전을 단층불전으로 만들었다는 상량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쌍계사 대웅전의 공포배치는 주간포를 생략하고 있는 후면의 중앙 3칸을 제외하고 정면과 양 측면의 주

간포 간격이 전체적으로 동화사 대웅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4척의 간격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승장의 공포 배열간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후기 불전에서 퇴칸에 적용된 공포의 간격과 수를 ‘일치형’, ‘불일치-정수배형’, ‘불일치-특수형’, ‘불일치-무관계형’의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각민 불전은 정면 3칸 형식과 5칸 형식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간격과 주간포 수가 불일치하고 주칸 간격이 정수배 형식을 사용하는 공통점이 나타난다.²¹

각민 불전의 공포 세부형식은 동화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모두 소첨차와 대첨차를 놓고 제공을 올리는 일반적인 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첨차는 대첨차와 소첨차 모두 끝단을 사절시키고 내부에 공안을 감입하고 있다. 각민 불전에서 보이는 첨차 내단에 감입된 공안은 삼국시대 첨차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후기로 가면서 사용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²² 그러나 각민 불전 모두 첨차의 마구리가 아닌 윗면을 일정한 두께로 따내는 방식의 공안을 감입하고 있어 공통점이 나타난다(도 7, 8).

²¹ 조선시대 건물 중 퇴칸에 적용된 공포의 간격과 수에 대한 퇴칸의 공포간격과 주간포 수는 ‘일치형’, ‘불일치-정수배형’, ‘불일치-특수형’, ‘불일치-무관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梁宰瑛, 「朝鮮時代 多包式建築의 架構 發達過程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pp. 133-153).

²² 건물에 나타나는 첨차를 크게 직선형, 단곡선형, 복합곡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민 불전은 복합곡선형에 해당된다. 또한 복합곡선형을 다시 치목기법에 따라 모서리를 따내는 방식과 면을 일정한 두께로 따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각민 불전은 화성 팔달문, 창덕궁 인정전, 경복궁 근정전, 흥인지문 등과 같이 궁실에서 사용되는 공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한길, 「조선시대 다포계 건축의 첨차형태 변화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 5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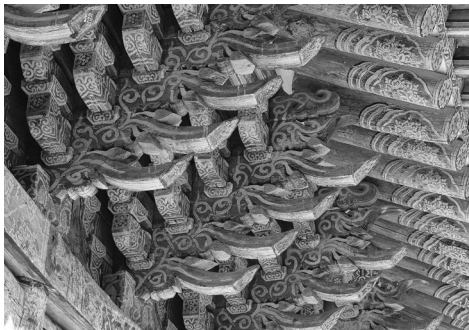


도 7 쌍계사 대웅전 첨차 공간



도 8 동화사 대웅전 첨차 공간

제공의 외단 형태는 모두 연화쇠서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화쇠서형 제공은 18세기 일반 불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지만 각 지역과 승장마다 세부형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²³ 각민 불전 제공은 기본적으로 외 3출목 7포작으로 구성하고 있어 3제공까지는 연화쇠서형 양서, 4제공은 수서 상부로 봉황두를 올려 마감하는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쌍계사 대웅전은 동화사 대웅전보다 외단이 한단 더 높은 외 4출목으로 4제공까지는 연화쇠서형 양서, 5제공은 수서 상부에 봉황두를 올려 마감하고 있다(도 9, 10). 특히 정면을 강조하기 위해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의 정면 4제공은 수서를 대신한 용두를 올려 장식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도 9 <동화사 대웅전 외단 공포>



도 10 <쌍계사 대웅전 외단 공포>

동화사 대웅전의 제공 내단 출목수는 5출목 11포작 형식으로, 외단 보다 2단이 높고 쌍계사 대웅전은 1단 더 높다. 내단 제공의 세부형태는 전체적으로 초각한 줄기의 끝단에 연봉으로 마감

²³ 오세덕, 「울진 불영사(佛影寺) 대웅보전(大雄寶殿)의 특징(特徵)과 건축기법(建築術)」, 『문화재』 제47권 (2014), p. 57.



도 11 <동화사 대웅전 내단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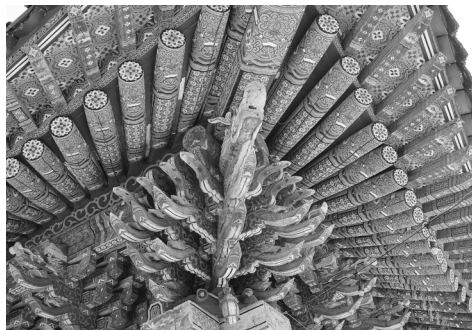
도 12 <쌍계사 대웅전 내단 공포>

하여 1~8제공까지 한 단씩 드러쌓아 빗천장 살대받침까지 연결하고 있어 조선후기 불전에서 가장 화려한 법식을 선보인다. 이러한 연봉을 가미한 제공 내단의 공포 형식이 보이는 불전으로는 속초 신흥사 극락전, 통영 안정사 대웅전, 오어사 대웅전 등이 있기도 하다(도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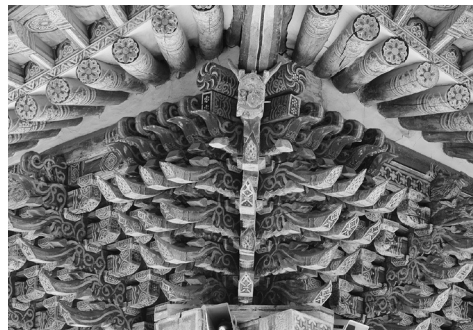
각민 불전인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은 팔작지붕으로 모두 귀포를 갖추고 있으며, 그 특성에 맞게 2방향에 면한 전각포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법식을 따르고 있다. 동화사 대웅전의 좌·우대 모두 1, 2, 3 제공은 연화쇠서형의 앙서, 4제공은 초각과 연봉을 가미한 수서, 5제공은 운공으로 마감하고 있다. 귀한대는 3제공까지 좌·우대와 동일한 연화제공의 앙서를 올리고, 4제공은 직설형의 운두를 두고 상부로 용두를 올려 마감하고 있다. 동화사 대웅전보다 출목수가 1단 더 많은 쌍계사 대웅전은 좌·우대 모두 4제공까지 연화쇠서의 앙서, 5제공은 초각과 연봉을 가미한 수서, 6제공은 운공을 올려 마감하고 있다. 귀한대 역시 4제공까지는 연화제공에 앙서를 올리고, 5제공은 초가지를 연꽃처럼 장식하여 놓고, 상부로 용두를 올려 마감하고 있다. 각민 불전의 귀포 외단 형식은 조선후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귀포의 동일단에서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는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²⁴ 귀포의 내단은 연봉을 가미하고 있는 제공의 내단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귀포와 측면의 주간포를 결구하는 방식은 주간포의 내단이 교차되지 않는 방법인 분리형, 포간거리가 더 넓지만 제공을 연장하여 교차시킴으로써 출목수를 하나 만드는 방법인 교차형, 포간거리와 내출목 거리를 일치시켜 내출목상에서 교차시키는 방법인 일치형, 주간포의 거리를 내출목 거리에서 출목수를 하나만큼 줄여서 출목내부에서 짜이는 방법인 내부

²⁴ 귀포 좌우대 구성의 구분 형식을 가, 나, 다, 라, 마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민 불전은 조선후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형식에 속한다(尹淇燮, 「韓國傳統木造建築의 귀포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4, pp. 38-54).

형 등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각민 불전은 모두 일치형 방식을 차용하고 있어 공통 점이 확인된다.²⁵ 그리고 귀포 좌·우의 간포 내부 3출목 첨차와 연결된 병첨차²⁶로 짜여 고식적 기법을 가미하기도 한다(도 13-16).



도 13 <동화사 대웅전 외단 귀포>



도 14 <쌍계사 대웅전 외단 귀포>



도 15 <동화사 대웅전 귀포 내단>



도 16 <쌍계사 대웅전 내단 귀포>

세 번째, 각민 불전의 지붕 가구는 쌍계사 대웅전은 내진고주를 이주 위치에 놓고 상부에 주두를 놓아 후면의 퇴보와 맞보형식으로 연결하였으며 내림주머장으로 결합되었다. 이에 비해 동화사 대웅전은 내진주를 이주 위치에 놓는 방식은 동일하고, 전면에서 뺀어온 대보가 내진고주를 지나 한 번에 후면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쌍계사 대웅전과 차이가 있다. 각민 불전의 지붕가

²⁵ 양윤식, 앞의 논문 (2000), p. 87.

²⁶ “내출목 포살미, 첨차에서 귀한대에 연귀로 맞닿은 첨차, 소첨보다 짧게 됨.” 장기인, 『한국건축사전(한국건축대계 IV)』(보성각, 1993), p. 384.

구는 대보와 측면 협간을 총량 2기로 연결하여 결속력을 높이고 있으며, 대보 상단은 동자주를 놓고 상부의 중보를 받고 있다. 동자주의 위치가 외진보다 기둥 안쪽에 있는 외편주 방식을 두 건물 모두 사용하는 공통점이 나타난다.²⁷

동화사 대웅전은 중보 상단으로 동자대공을 놓아 상부의 중도리를 받는 5량가 구성을 이루고 있는 반면 쌍계사 대웅전은 중보 상부로 중보를 한단 더 두는 7량가 구성을 이룬다. 7량가 구성을 보이는 쌍계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일반 불전의 단연 물매가 7~8치로 설정되는 것에 비해 10치가 초과하여 47.5°의 각도를 보이고 있어 지붕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²⁸ 이러한 쌍계사 대웅전의 높은 지붕 설정은 정면이 5칸으로 비교적 넓게 설정된 평면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3칸 넓이의 건물과 동일한 물매를 적용하였을 경우 건물이 전체적으로 낮아 보이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보인다.²⁹ 일반 불전의 지붕 가구는 보와 도리를 이용하여 형성하지만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은 내목도리를 생략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내목도리는 중도리에서 중심도리까지 뻗어있는 서까래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중간 이음 부재로 이를 생략할 경우 지붕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각민 불전은 내목도리를 생략하고 덧도리를 이용하여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순천 정혜사 대웅전, 해남 미황사 대웅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 등에서 사용되고, 남한지역보다 북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는 기법이다.³⁰

27 동자주의 위치가 내진주 상부에 놓일 때 동자주의 위치에 따라 내진주 상부에 있을 경우 차두주, 외진보다 기둥 안쪽으로 동자주가 위치하면 외편주, 반대로 내진주보다 동자주가 바깥에 위치하면 내편주로 구분하고 있다(이우중, 「單層 佛殿 內柱의 結構 및 配列 方式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22).

28 성대철, 「韓國傳統木造建築의 比例體系에 關한 研究」(朝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博士學位論文, 2011), p. 137.

29 성대철 (앞의 논문, 2011), p. 137에서는 쌍계사 대웅전 상량문에 기록되어 있는 “본래 2층인데 고주로 삼을 재목이 없어 단층으로 고쳐 만들었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일반적인 단층건축물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30 최근 연구자료를 통해 소개된 북한지역의 사찰 48동과 사찰이의 건물 46동 중 사찰 14동, 비사찰 13동 등 각각 전체 자료의 28~29%의 건물이 덧도리 결구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지역에 많이 보이고 있는 덧서까래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중도리 위에 덧도리를 올리고 단연을 덧도리에 결구하는 소극적인 방식, 둘째, 단연이 장연의 중간 위치쯤에 걸쳐지는 방식이다. 이 두 번째가 덧갈이의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방식이며 호남이나 충청지방에서도 널리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찰이 3건, 일반건물이 4건이 된다. 대표적으로 평북 연변 서운사 대웅전 1787년 지어진 평북 향산 수충사 영당, 함흥 선화당 이 있다. 세 번째는 단연이 장연의 거의 전체 길이만큼 길게 이어져서 서까래가 이중으로 보이는 덧서까래 같은 결구를 이루는 방식이다. 이 중에서 각민파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묘향산 일원의 연변지역이다(김동욱, 「조선 후기 지붕구조의 새로운 시도 : 주목해야 할 서까래 결구의 색다른 방식」, 『건축역사학회』 제19권 2호 통권69호, 2010, pp. 165-166).

각민 불전의 천장은 2중 구성인데 내목도리 위치에서 장널을 이용한 빗천장을 가설하고 그 상부로 널을 이용한 기둥을 만들고 있다. 천장은 중도리와 외기도리로 만들어지는 중앙부에 장방형의 공간을 우물반자로 처리하고, 중도리를 경계로 하여 내출목도리 장여까지는 빗반자를 설치하였다. 중앙천장의 우물반자는 종량과 중도리장여 사이에 짜여져, 장반들은 중도리장여에 걸치고 보방향으로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다음 단반자들과 소란대를 끼우고 반자널을 올려 놓고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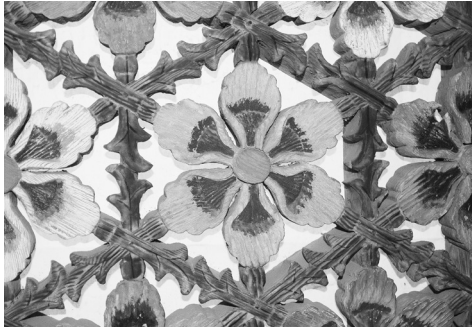
네 번째, 각민 불전의 세부장엄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꽃살문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꽃살문은 불전의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고대 건물에는 그 실례가 남아 있지 않고, 일부 공예품을 통해 추정할 따름이다.³² 현재 꽃살문이 남아 있는 불전 중 건립시기가 가장 이른 예로는 심원사 보광전이 있으며, 보광전 이후 조선 중·후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유행처럼 번지고 각각 건물의 꽃살문마다 특징이 나타난다. 각민 불전의 꽃살문은 동화사 대웅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고 이후 쌍계사 대웅전으로 이어진다. 동화사 대웅전은 정면 3칸에 모두 꽃살문을 배치하였는데 정간은 4분합문으로 가운데 두짝은 세모솜을빋모란꽃살, 그 양옆은 빋모란꽃살을 두고 있다. 좌·우 협간은 3분합문으로 좌협간의 가운데는 빋국화살, 양 옆은 세모솜을빋금강저살이고 우협간의 가운데 문은 빋국화살 양 옆은 육모솜을빋꽃살이다.³³ 쌍계사 대웅전은 정면 5칸을 모두 꽃살을 달았는데 정간만 세모솜을빋모란꽃살에 치자꽃모양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양협간과 퇴간은 빋살에 꽃무늬를 새겨 넣었다.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에 등장하고 있는 꽃살은 모든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고식적인 기법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꽃살은 주로 정간에 배치되어 있는 솜을빋모란꽃살문으로 삼분씩 맞춤을 한 동일한 조합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초기 건립 단계부터 꽃살에 대한 계획이 설정되어 갖태를 조정할 수 있는 홈을 만들고 있어, 꽃살을 문살에 감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도 17, 18). 특히 각민 불전에서 꽃살문의 중요성은 이미 앞쪽에서 언급하였듯이 팔공산 동화사 상량문에 평안도의 뛰어난 장인을 초청해 畫藏子戶와 함께 대웅전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각민의 건축기법에서 꽃살 창호를 감입하는 기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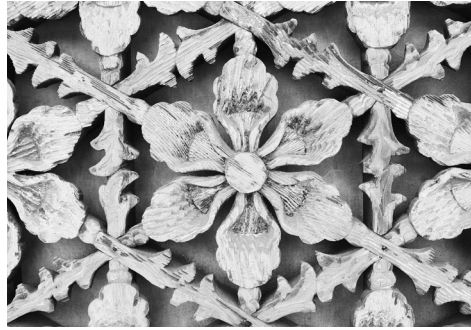
31 문화재청, 앞의 보고서 (2012), p. 200.

32 심원사 보광전의 창호 건립기법이 통판투조형의 연지수리문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문양 형태를 살펴볼 때 큼직한 연꽃과 뾰족한 꽃잎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고려말에서 조선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연구가 있다(任聖玉, 앞의 논문, p. 48).

33 임은진, 「한국 불교건축의 꽃살문에 관한 연구-경상도·전라도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2013), p. 450.



도 17 <동화사 대웅전 내단 공포>



도 18 <쌍계사 대웅전 내단 공포>

논산 쌍계사 대웅전과 동화사 대웅전은 비록 그 규모가 다르지만 꽃살문 이외에도 세부적인 장엄 요소에서 많은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불전 장엄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두의 표현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용두의 표현과 동일한 조각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용의 입 앞에 있는 여의주를 외부로 노출시켜 마치 용이 여의주를 주시하면서 쫓는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여의주를 쫓는 용의 배치는 귀포 상단 또는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은 불전의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또 다른 세부장엄 요소는 기둥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사찰의 경제력은 17세기 보다 18세기가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둥역시 17세기보다 18세기에 잘 치목된 기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각민 불전은 유독 고식의 배흘림기둥을 사용하는 가 하면, 굵은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도량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이뿐만 아니라 흰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굵어진 부분을 절단하여 나비장 형태의 별도 부재를 기우고 반대쪽에서는 굵어진 부분을 퍼질 수 있도록 홈을 파서 처리하는 기법이 쌍계사 대웅전에서 적용되기도 한다.³⁴

이상을 통해 살펴본 각민 불전의 건축기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평면형식은 불단을 이주 위치에 배치시키고 일반적인 조선후기 불전과 동일한 정간강조형을 선호하고, 전체적인 장단비가 1:1.4에 가까운 황금비율을 차용하고 있다. 공포의 구성에서는 18세기 가장 일반적인 연화쇠서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제공의 세부형태에서는 다른 불전에서 보이는 형식보다 더욱 더 화려하고 장식성이 돋보이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내단의 화려한 장엄을 위해 다른 불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내·외 2단의 출목수 차이를 두고 있기도 하다. 지붕가구 구성에서

³⁴ 문화재청, 앞의 보고서 (2012), p. 86.

는 내목도리를 생략하는 파격적인 법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붕 상단의 보토량을 줄일 수 있는 덧도리를 차용하여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불전에 나타나고 있는 세부장엄적인 요소로는 꽃살문을 감입하겠다는 조영의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2중적인 천장의 구성, 용두의 표현, 도량주의 사용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각민 불전에서 보이는 세부적인 건축기법은 모두 18세기 일반 불전에서 보이는 세부적인 요소와 동일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요소를 모두 사용하는 불전은 앞쪽에서 설명한 동화사 대웅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등이 유일한 사례로 18세기 건축사의 시대적인 흐름에서 건물을 조영한 승려장인의 건축기법이 적용된 사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내소사 대웅보전과 신흥사 극락보전에 보이는 각민의 건축술

앞장에서는 공포를 비롯한 평면, 의장, 가구, 장엄 등을 중심으로 18세기 일반 불전과의 비교를 통해 승장 각민의 건축기법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각민 불전과 유사한 건축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내소사 대웅보전과 신흥사 극락보전의 특징을 분석해 각민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³⁵

1. 내소사 대웅보전

내소사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553년(백제 성왕 31)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기록은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 고려시대 정지상, 이규보의 시문과 1222년 제작된 범종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 이전 사찰이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조선시대 사역에 관해서는 한국전쟁으로 사지가 소실되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1995년 건립된 내소사사적비에는 1633년(인조 11)에 淸旻이 중건하였고, 1902년에 關海가 수축한 기록이 확인된다.³⁶

³⁵ 건축기법의 유사성과 친연성을 근거로 동일한 장인이 조성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이루어진 경산 환성사 대웅전 해체수리과정에서 1653년 재건된 운문사 대웅전과 동일한 건축기법이 확인되고, 새롭게 확인된 상량문에서도 동일한 장인집단이 조성한 건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후 건축기법의 유사성과 동일한 장인 또는 장인집단의 관련성이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³⁶ 「전통사찰총서 전북의 사찰」(사찰문화재연구원, 1997), pp. 347-349.

사찰의 주불전인 내소사 대웅보전은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 집이며, 각민 불전과 친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웅보전에서 보이는 각민 불전의 건축적 친연성은 첫 번째, 평면 형태를 살펴 보면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조선후기 불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주간 설정을 정면 12척-16척-12척으로 구성하고, 측면이 8척-12척-8척으로 설정하여 동화사 대웅전과 동일하다. 그리고 건물의 정면대 측면 전체비율이 1:1.425의 황금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공포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면과 후면의 정간은 3조씩 주간포를 놓고, 협칸과 측면의 중앙간은 2조씩 놓는다. 측면의 전·후간은 주간포를 1조씩 놓아 전체적으로 주간포를 22조, 주심포 8조, 귀포 4조를 포함해서 총 34조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사방 모두 공포 세부형식 및 주간 간격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정하게 배열하고 있어 사면동일형 법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포 제공의 외단 형태는 외 3출목 7포작으로 구성하고, 3제공까지 연화쇠서형 양서, 4제공은 수서를 대신하여 용두를 올려 강조하고 있다. 불전 내부는 외출목보다 2단 높게 5출목 9포작으로 놓고, 제공은 초가지에 연봉을 가미하여 화려하게 9단까지 연속적으로 올리고 있어, 조선후기 불전에서 가장 화려한 장엄조식을 보이고 있다. 대웅보전 사방의 귀포 역시 전각포를 놓고, 좌·우대 모두 1, 2, 3 제공은 연화쇠서형의 양서, 4제공은 초각과 연봉을 가미한 수서, 5제공은 운공을 올려 마감하고 있다. 귀한대는 3제공까지 좌·우대와 동일한 연화제공의 양서를 올리고, 4제공은 직설형의 운두를 두고 상부로 용두를 올려 마감하고 있다. 귀포의 내단은 연봉을 가미하고 있는 제공의 내단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귀포와 측면의 주간포를 결구하는 방식은 일치형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³⁷ 이러한 내소사 대웅보전의 공포 형식이나 배치 방식은 동화사 대웅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두 건물의 친연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요소이다.

세 번째, 대웅보전의 가구구성은 내진고주를 이주위치에 놓고 대보와 후면의 퇴보가 맞보 형식으로 결합되는 구성으로 전체적인 5량가 방식이다. 또한 동자주의 위치가 외진보다 기둥 안쪽에 있는 외편주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동화사 대웅전과 동일하다.

네 번째, 세부장엄은 내소사 대웅보전의 정면 3칸 모두 꽃살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소 복잡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정간의 네문짝 가운데 부분은 모란과 봉오리, 연꽃과 봉오리의 다양한 모습이 새겨진 빗국화연꽃살, 윗부분은 육모솜을빋꽃살을 장식하고 있다. 좌협칸 좌측문짝은 활짝 핀 연꽃의 육모솜을빋세로꽃살, 우측문짝은 활짝 핀 모란꽃의 세모솜을빋꽃살, 윗부분은

³⁷ 양운식, 앞의 논문, p. 87.

육모솜을빋꽃살이다. 우협간 두문짝은 활짝 핀 국화꽃이 새겨진 빋국화살, 윗부분은 세모솜을 빋일원금강저살이다.³⁸ 이러한 내소사 대웅보전의 꽃살문은 동화사 대웅전에 비해 다소 복잡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건물의 초기 건립단계부터 꽃살에 대한 계획이 설정되어 갖테를 조정할 수 있는 홈을 만들어 꽃살을 문살에 감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과 주요 모티브와 세부적인 형태에서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³⁹ 또한 세부장엄에서 각민불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이 여의주를 혀 밖으로 내어 쫓고 있는 용두의 표현과 도랑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소사 대웅보전의 건축기법과 세부요소는 각민 불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기법과 강한 친연성이 확인되고 있어, 내소사 대웅보전의 중건과 각민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까지 내소사 대웅보전의 중건시기를 명확하게 단정 짓을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만세루 중건기에 따르면 1744-1820년 사이에 두 번이나 불이 났으며 1821년 월파당 광은이 화주가 되어 문기와 승재, 시연 등이 일을 하여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⁴⁰ 1744년에 사찰의 소실로 인하여 대웅보전이 중건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 신흥사 극락보전

신흥사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652년(진덕여왕 6) 慈藏이 창건하여 香城寺라 하였으며, 당시 繼祖庵과 能仁庵도 함께 지었다. 이 때 자장은 구층탑을 만들어 佛舍利를 봉안하였다고 하는데 이 구층탑이 어느 탑인지는 자세하지는 않다. 그러나 향성사

³⁸ 임은진, 앞의 논문, p. 453.

³⁹ 논산 쌍계사 대웅전과 내소사의 문양과 세부기법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쌍계사 대웅전의 상인방과 하인방의 홈은 내소사보다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정확하게 선대가 걸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남아있으며 선대가 만나는 중간부분에는 별도의 T형 부재를 꽂는 잠금장치가 있다. 또한 갖테와 울거미에 있어서도 내소사와 동일하게 울거미에 턱이 있어 갖테의 일부가 선대의 내부로 걸리는 점도 동일하며 역시 둔테를 사용하여 안으로 열리게 되는 안여닫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또한 꽃살의 문양 또한 국화, 모란, 연꽃 등으로 내소사와 매우 유사하며 정간의 6엽 연화문 양은 내소사의 우협간과 동일하며, 우협간의 모란과 연꽃문양은 내소사의 좌협간 및 정간과 동일하다(성대철·장진영,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의 구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 제29권 제4호, 2013, p. 145).

⁴⁰ 「來蘇寺萬歲樓重建記」, 「(중략) 庚辰相去百餘年兩人灰燼再爲修葺其成也未必非毀其毀也未必非成然則闕千劫而不足恃在樓也傳萬歲而遂不泯在名也亦(후략)」,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12), p. 51.

는 698년(효소왕 7)에 능인암과 함께 불타 버린 뒤 3년간 폐허로 남아 있었다. 701년에 義湘이 자리를 능인암터로 옮겨서 향성사를 중건하고 절이름을 禪定寺라고 고쳤다. 신흥사 경내에 남아 있는 극락보전은 1647년 창건되었고, 1749년 대웅전(극락보전)이 중건된 것이다. 이후 1821년 극락보전을 중수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⁴¹

사찰의 주불전인 신흥사 극락보전은 다포계 겹처마 팔작지붕 집이며, 각민 불전과 친연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극락보전에 보이는 각민 불전의 건축적 친연성은 첫 번째, 평면 형태를 살펴보면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조선 후기 불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평면을 차용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주칸 설정을 정면 12척-16척-12척 구성을 보이고 측면이 8척-12척-8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의 정면대 측면 전체비율이 1:1.425의 황금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평면의 주칸 설정은 동화사 대웅전과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면 및 주칸 설정과 동일한 것이다.

두 번째, 공포의 구성을 살펴보면 내·외 3출목을 사용하고 있어 각민 불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포의 외출목보다 내출목을 높게 설정하는 기법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공포의 배치는 정면과 후면의 정간은 3조씩 주간포를 놓고, 협간과 측면의 중앙 칸은 2조씩의 간포를 놓았다. 측면의 전·후칸은 주간포를 1조씩 놓아 전체적으로 주간포 22조, 주심포 8조, 귀포 4조를 포함해서 총 34조를 배치하고 있어 전체적인 공포의 구성이 각민 불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사방 모두 공포의 세부형식 및 주칸 간격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정하게 배열하고 있어 조선 후기 일반적인 법식을 잘 따르고 있다.⁴² 이러한 주간포의 배치기법 및 간격은 동화사 대웅전과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법으로 각민 불전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는 요소이다. 또한, 제공의 세부형태 역시 내 3출목으로 3제공까지 연봉이 가미된 쇠서형식과 4제공은 용두를 올려 마감하고 있다. 내단은 전체가 운궁을 이루면서 그 끝에 날카롭게 장식된 연봉이 중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⁴³ 그리고 첨차 역시 대첨과 소첨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공안을 감입하고 있다. 이러한 공포의 세부기법은 동화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보전 등의 모든 각민 불전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요소와 동일한 기법이다.

세 번째, 극락보전의 가구구성은 불단을 이주 위치에 놓고, 내진고주를 세워 전면에 대보와 후면의 퇴보가 맞보형식으로 결합되는 구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천장의 구성은 내목도리가 생략

41 『江原道重要木造建物實測調査報告書』(江原道, 1998), pp. 65-99.

42 양운식, 앞의 논문, p. 165.

43 江原道, 앞의 보고서, p. 69.

되는 기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적용한 조선후기 불전은 동화사 대웅전과 내소사 대웅보전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각민의 독자적인 가구법이다.

네 번째 불전의 세부형식을 살펴보면, 정면 정간에 4짝의 꽃살창문을 달았는데 중앙에는 솟을빗모란꽃살문을, 양측면은 육모솟을빗꽃살을 사용하고 있다. 천장은 빗천장과 우물천장이 결합된 2중 구성을 보이고 있고, 빗천장 하단에 연봉으로 장식한 부재를 사용하고 있다. 귀포의 귀한대 상단은 용두를 배치하여 장엄적인 요소를 높이고 있는데 용의 입쪽에 배치하고 있는 여의주를 외부로 노출시켜 마치 용이 용의주를 쫓는 각민 불전의 용의 형상과 동일하다. 불전의 사방 기둥은 외진주 보다 더 두꺼운 도량주를 놓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사 극락보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부기법은 동화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보전 등의 각민 불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세부장엄 법식과 동일한 구성요소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신흥사 극락보전의 세부요소는 각민 불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소들과 강한 친연성이 확인되고 있어 1750년 중수 시에 각민의 참여로 거의 새롭게 중건된 건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각민의 출신지인 평안도 일원과 신흥사의 영향관계는 1차 중건시기로 추정되는 1644년부터 확인되고 있는데 “祖師가 멀리 서쪽 妙香山에서 이곳 동해 가로 왔으니 처음에 절조를 지켜 바다에 빠져 세상을 마치려 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을 피해 입산하려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 또한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⁴⁴라는 기록이 사적기에서 확인되고 있어 1750년 각민의 중건 이전에 이미 평안도의 승려와의 신흥사가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민 불전과 내소사 대웅보전과 신흥사 극락보전의 세부적인 건축기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각민의 불전과 내소사 대웅전·신흥사 극락전 양식비교

	동화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보전	신흥사 극락보전
건물 간수	정면3칸×측면3칸	정면3칸×측면3칸	정면3칸×측면3칸
가구	1고주 9량가 2중보	1고주 11량가 3중보	1고주 9량가 2중보
불단위치	이주법	이주법	이주법

⁴⁴ 「襄陽 神興寺事蹟碑」, “(중략) 有君臣大義不思所以進之道乎師遠自西妙香山來此東海濱未知初欲潔身蹈海終焉逃世入山耶豈不亦異乎哉噫天運循環無往不復涸灘今已三 (후략)”.

측면간격		28척	28척	28척
공포의 형식		사면동일형(다포)	사면동일형(다포)	사면동일형(다포)
출목	외단	3출목 7포작	3출목 7포작	3출목 7포작
	내단	5출목 11포작	5출목 11포작	5출목 11포작
제공의 형태	외단	연봉+수서+운공	연봉+수서+운공	연봉+수서+운공
	내단	연봉형	연봉형	연봉형
주간포 간격		4척	4척	4척
귀포내단 처리기법		교차형	교차형	교차형

V. 맺음말

조선후기 활약했던 많은 승려장인 중에서도 18세기 가장 뚜렷한 建蹟을 남긴 인물인 각민의 활동지역과 건축기법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대구 동화사 대웅전 상량문과 논산 쌍계사 대웅전 상량문 분석을 통해 승장 각민이 평안도에서 초빙되어 남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불전의 화려한 장엄조식 중 하나인 꽃살문을 함께 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각민 불전인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을 18세기 일반 불전과 세부 건축기법 비교를 통해 승장이 즐겨 사용했던 건축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승장 각민이 즐겨 사용했던 건축기법은 먼저 불전의 평면형식은 불단을 이주 위치에 놓고 일반적인 조선후기 불전과 동일한 정간강조형을 사용한다. 3칸형 불전인 경우 건물의 전체적인 정면대 측면의 장단비가 1:1.4에 가까운 황금비율을 선호한다. 공포의 구성에서는 18세기 가장 대중적인 연화쇠서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제공의 세부형태는 다른 불전에서 보이는 형식보다 더욱 더 화려하고 장식성이 돋보이고 있다. 특히 내단의 화려한 장엄조식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불전과 틀리게 내·외 2단의 출목 수 차이를 두고 있기도 하다. 지붕가구 구성에서는 내목 도리를 생략하는 파격적인 법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붕 상단의 보토풀을 줄일 수 있는 덧도리를 차용하여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각민 불전에 나타나고 있는 세부장엄 요소로는 꽃살문을 감입하겠다는 조영의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빗천장의 사용, 용두의 표현, 도량주의 사용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세 번째로 이상의 각민 불전을 통해 확인한 몇 가지의 독자적인 건축기법이 18세기 중반 재 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내소사 대웅보전과 신흥사 극락보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들 건물과 각민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추론하여 보았다.

본고에서 언급한 각민 즉 승장 불전의 건축기법 연구는 아직까지 한국건축사에 다루어지지 않는 생소한 분야로 다소 구성 및 논지 전개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보완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 승려장인(monk artisan), 건축기법(construction technique), 각민(Gakmin), 동화사 대웅전 (Daeungjeon Hall, Donghwa-sa Temple), 쌍계사 대웅전(Daeungjeon Hall, Ssanggye-sa Temple), 내소사 대웅보전 (Daeungbojeon Hall, Naeso-sa Temple), 신흥사 극락보전(Geungnakbojeon Hall, Sinheung-sa Temple)

■ 투고일 2016년 8월 31일 | 심사개시일 2016년 9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18일 ■

참고문헌

1. 한국문헌

- 江原道, 『江原道重要木造建物實測調査報告書』, 1998.
- _____,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1993.
- _____, 「정조·순조연간 관영공사에서 別看役 丁遇泰의 조영활동」, 『건축역사연구』 제16권 3호, 2007.
- _____, 「조선후기 지붕구조의 새로운 시도 주목해야 할 서까래 결구의 색다른 방식」, 『건축역사학회』 제19권 2호 통권69호, 2010.
- 김중훈, 「전통 한옥 계획에 나타난 장인 건축기법 연구」, 明知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1.
- 김한길, 「조선시대 다포계 건축의 침차형태 변화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大邱廣域市, 『동화사 대응전(2002~2005년) 文化財 修理報告書』, 2007.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한의 전통사찰 ④ 평안북도(下)』, 양사재, 2011.
- 도윤수·한동수, 「17~19세기 김릉사의 佛事 관련 기록물 현황과 營建활동」, 『건축역사연구』 제22권 5호, 2013.
- 동화사·국립대구박물관, 『팔공산 동화사』, 2009.
-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上梁文集(補修時 發見된 上梁文)』, 1980.
- 문화재청, 『영조규범조사보고서』, 2006.
- _____,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 서치상,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來地域 造營活動」, 『건축역사연구』 제12권 3호, 2003.
- 성대철, 「韓國傳統木造建築의 比例體系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博士學位論文, 2011.
- 성대철·장진영,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꽃살문의 구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 제29권 제4호(통권294호), 2013.
- 손신영, 「興天寺와 華溪寺의 건축장인과 후원자」, 『강좌미술사』 26, 2006.
- 梁宰瑛, 「朝鮮時代 多包式建築의 架構 發達過程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 오세덕, 「17世紀 僧匠의 建築術 研究 -覺元을 中心으로-」, 『東岳美術史學』 第12號, 2011.
- _____, 「울진 불영사(佛影寺) 대응보전(大雄寶殿)의 특징(特徵)과 건축기법(建築術)」, 『문화재』 제47권, 2014.
- _____, 「하동 쌍계사 대응전의 건립시기 재검토 -월원의 건축술 분석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43집, 2014.
- _____, 「18世紀 僧匠 快衍의 建築術과 佛殿」, 『고문화』 83, 2014.
- _____, 「朝鮮後期 僧侶匠人의 系譜와 建築技法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尹淇燮, 「韓國傳統木造建築의 규모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종우, 「단층불전 내주의 결구 및 배열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任聖玉, 「朝鮮後期 꽃살 窓戶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0.
- 임은진, 「한국 불교건축의 꽃살문에 관한 연구 -경상도·전라도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13.
-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문예출판사, 2004.
- 장경희, 「조선후기 魂殿造成 木手 연구」, 『한국학연구』, 29, 2008.
- 장기인, 『한국건축사전(한국건축대계Ⅳ)』, 1993.

국문초록

18세기 승장 각민의 활동지역과 건축기법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번째로 대구 동화사 대웅전 상량문과 논산 쌍계사 대웅전 상량문 분석을 통해 승장 각민이 평안도에서 초빙되어 남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불전의 화려한 장엄조식 중 하나인 꽃살문을 함께 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두번째로 이러한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각민 불전인 동화사 대웅전과 쌍계사 대웅전을 18세기 일반 불전과 세부 건축기법 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승장이 즐겨 사용했던 건축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승장 각민이 즐겨 사용했던 건축기법은 먼저 불전의 평면형식의 경우 불단을 이주 위치에 놓고 일반적인 조선후기 불전과 동일한 정간강조형 평면을 사용한다. 3칸형 불전인 경우 건물의 전체적인 정면대 측면의 장단비가 1:1.4에 가까운 황금비율을 선호한다. 공포의 구성에서는 18세기 가장 대중적인 연화쇠서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제공의 세부형태는 다른 불전에서 보이는 형식보다 더욱 더 화려하고 장식성이 돋보이고 있다. 특히 내단의 화려한 장엄조식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불전과 달리 내·외 2단의 출목수 차이를 두고 있기도 하다. 지붕가구 구성에서는 내목도리를 생략하는 파격적인 법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붕 상단의 보토풀을 줄일 수 있는 덧도리를 차용하는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각민 불전에 나타나고 있는 세부장엄 요소로는 꽃살문을 감입하겠다는 조영의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빗천장의 사용, 용두의 표현, 도량주의 사용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세번째로 이상의 각민 불전을 통해 확인한 몇 가지의 독자적인 건축기법이 18세기 중반 재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내소사 대웅보전과 신흥사 극락보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들 건물과 각민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추론하여 보았다.

Abstract

The Monk - Artisan Gakmin: His Activitie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in the Eighteenth Century

Oh Se deok*

The article explores monk-artisan Gakmin's Activities and his construction techniques in the eighteenth century. First of all, Gakmin was invited from Pyeongan Province and produced floral design lattice doors, one of the splendid decorative motifs used in Buddhist architecture, according to the records concerning ridge-beam-raising ceremonies (*sangnyangmun*) for the Daeungjeon of Donghwas Temple in Daegu and for Ssanggye-sa Temple in Nonsan.

Secondly, comparing the Daeungjeons of Donghwa-sa and Ssanggye-sa temples, built by the monk-artisan Gakmin, to other temple structures from the eighteenth century and their detailed architectural design, I was able to confirm his favored architectural techniques. One of them is to place an altar at the *yiju* column and to build a middle bay (*jeongkan*)-stressed plan, which is identical to that of general temple structures in the late Joseon Period. In the case of the three-bay-wide temple, he preferred the golden ratio of 1:1.4 for the ratio of the width to the depth. As for the bracket system (*gongpo*), he basically used the most common

* Gyeongju University

type: the lotus flower and cow's tongue type. The details of the bracket system in his buildings are much more glamorous and decorative than any other temple buildings. In particular, he incorporated a different number of chulmok (exit wood) in the inner and the outer layers to enhance the splendor of the buildings. In terms of the roof structure, while intentionally omitting an inner purlin, he instead adopted a double purlin, which reduced the amount of sand in the roof to strength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The detailed decorative motifs on the temple buildings built by Gakmin can be found in the floral design lattice doors, slanting ceilings, dragon heads, and natural wooden columns, which were not processed but preserved their natural shapes. Thirdly, these features are also found in the Daeungbojeon Hall of Naeso-sa Temple and the Geungnakbojeon Hall of Sinheung-sa Temple, both of which might have been reconstructed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Thus it is reasonable to surmise that these buildings could be pertinent to Gakmin.